

밝은 빛이 보인다.  
분명 정신을 잃었던 듯하다.  
그래, 여기는 전쟁터.  
우리는 상부의 지휘로 작전지에 집결하던 중  
빌어먹을 적군의 기습으로 폭발 속에 나뒹굴고 있던 참이다.

머리가 ' 심하게 '라는 말로 부족할 만큼 울린다.  
아마 귀에서 피가 새는 나보다 방금 폭격에 다리 한 짝 시원하게 날아간 저 병사나  
내 뒤에서 부상병을 한 손으로 끌고 가며 다른 한 손으론 노련하게 대응 사격을 하  
는 분대장 같은 사람이 비로소 전쟁을 경험했다고 자부할 수 있으리라. 그밖에도  
고통으로 부르짖으며 의무병을 불러대는 분대원들의 난리통에, 적군은 보다 편하게  
우리를 노릴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나는 재빨리 몸을 숨겨 상부에 보고해야만  
했다. 그게 내 역할이니까. 선임들에게 죽도록 까이면서 음어(통신언어)를 외운 노  
력이 결실을 볼 순간이다. 난 서둘러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통신부에 연결했  
다. 그렇게 즉시 관동성명을 대려던 순간. 어라,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이  
름을 기억 못 하는 걸까. 이름이 날 기억 못 하는 걸까. 지금은 썰뱅이, 쉼뱅이,  
딸수 같은 소대에서 선임들이 나를 불렀던 야박한 멸칭 외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쩌면 내 이름 따위, 적의 공격에 이미 죽어버린 걸까. 하지만 내 몸은.  
정확히 내 입술은 또박또박하게 관동성명을 불러 내 이름을 부활시켰다.

“일병 김동환!! 여기는 아드본(ADVON). 들리나 씨얼씨(CRC)!?”

“여기는 씨얼씨, 지금 즉시 전시상태를 해제하라. 반복한다. 지금 상황은 종료되  
었다.”

아무래도 통신병들 또한 적에게 폭격을 맞아 머리가 반쯤 파였을 테다.

지금 내 앞에 우두커니 서 나를 뚫어져라 살피는 이상한 병사처럼 미친 게 틀림없  
군.

그렇지 않다면 엎드려라, 이 미친 작자야. 제발. 납탄 앞에서, 우리들의 군모는 골  
판지 만큼도 못하고 머리통은 한없이 웅졸해질 뿐이란단다. 나의 전우는 그 사실을  
하느님에게 들었으니, 너만큼은 스스로 알길 바라며. 나는 여름철 메뚜기처럼 득달  
같이 뛰어올라 병사를 덮쳤다. 내가 적이였다면 허리춤에 있는 날붙이로 녀석의 복  
부에 ' 간단한 인사 '를 건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러기라도 한단 말  
인가. 목숨을 구해준 고마운 은인에게 저 막돼먹은 병사는 그 은혜를 나의 품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는 형태로 갇고 있었다.

덕분에 포화의 뿌연 먼지는 무대에 내리깔리는 안개요, 우리는 전장 한복판에서  
죽음의 무도를 추고 있는 무용수 같은 꼴이 되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노릇이  
였다.

나는 즉시 병사의 권총을 뺏어 위협적이게 겨누었다. 누군가 패닉에 처했을 때, 확실한 충격을 주어 정신을 돌려놓아야 한다. 분대장님의 말씀이었기에 믿을 수 있었다. 근데 녀석은 더욱 공포에 질린 듯 더욱 몸부림을 치며 소리도 질렀다. 이젠 나도 한계다. 소란이 커지면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뺨치는 화에 나의 손가락 또한 자제력을 잃어가는 찰나. 나는 녀석이 하는 외침을 듣고 만다.

“제발 진정하세요. 선생님! 저는 경찰관입니다! 지금은 전시상태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총알이 내 머리에 깊숙이 자리 앉는다. 쿵쿵한 화약 대신 더욱 쿵쿵하디 잔혹한 기억을 품은 총알. 적잖은 충격에 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인지해본다. 아. 그전에 먼저 쓰러진다.  
“.....”

밝은 가로등이 정신없이 비추는 빛이 보인다.

나는 분명 정신을 잃었던 듯하다.

그래. 여기는 주차장.

경찰과 구급대가 시민들을 통제하며 분주히 사건을 수습하고 있었다.

들것에 실려있던 나는 저 멀리 군중 사이에 있던 ' 이상한 병사 '와 눈이 마주쳤다.

' 선생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껏 각진 경찰 모자를 들어 올리며 그는 그렇게 말했던 듯하다.

저렇게 인품 좋고 성실한 경찰관을 ' 이상한 병사 '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무래도 정말 ' 이상한 병사 '는 나였던 모양이다.

그리 생각하며 눈을 감고 생각을 주차장의 소음에 흘려보낸 어느 밤이었다.